

# 우리 주위의 전기

글 | 송지혜

그림 | 강아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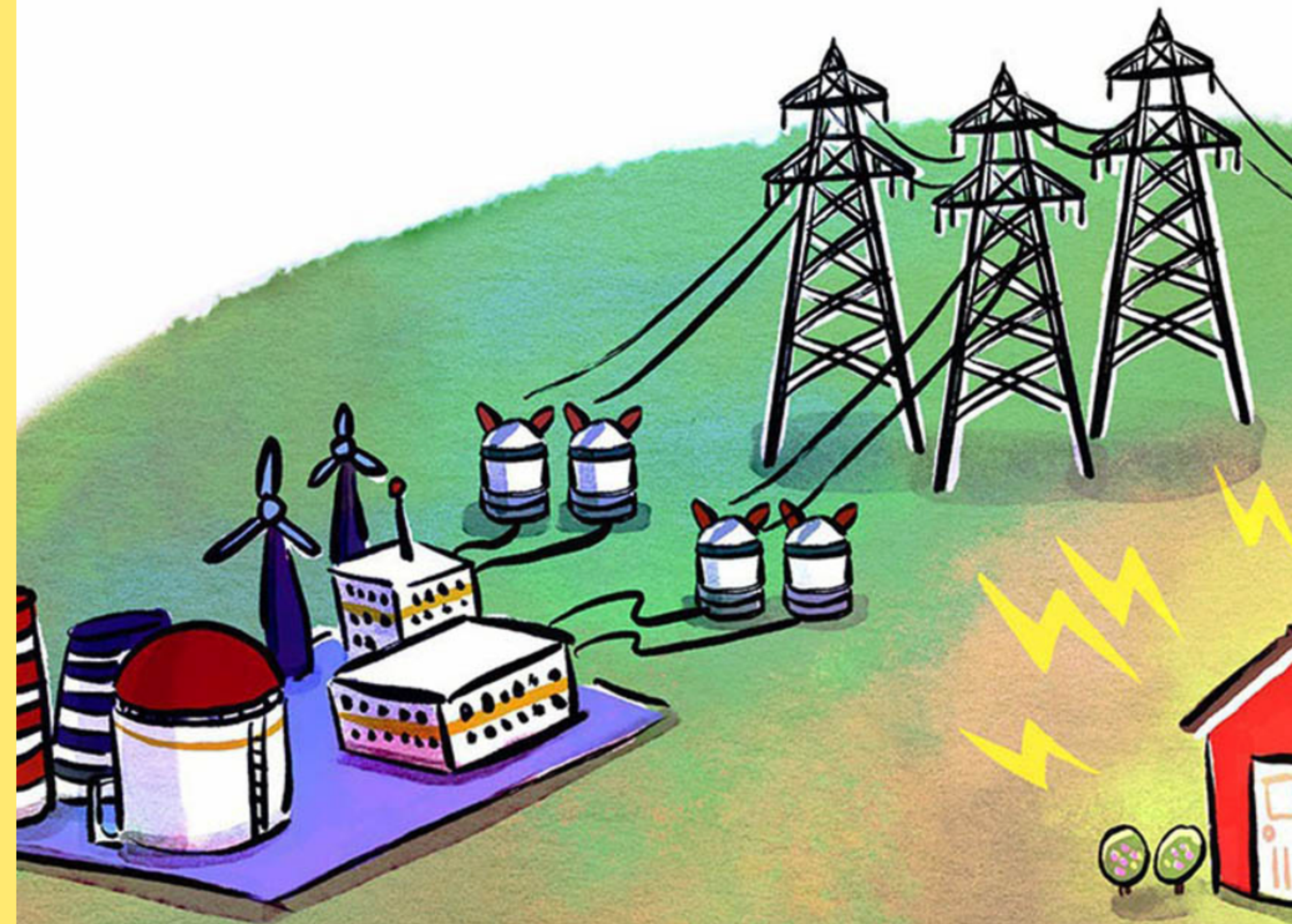
글 | 송지혜

그림 | 강아람

편집 | 김은파, 이수인, 이정아

편집 디자인 | 이해명

목소리 | 황창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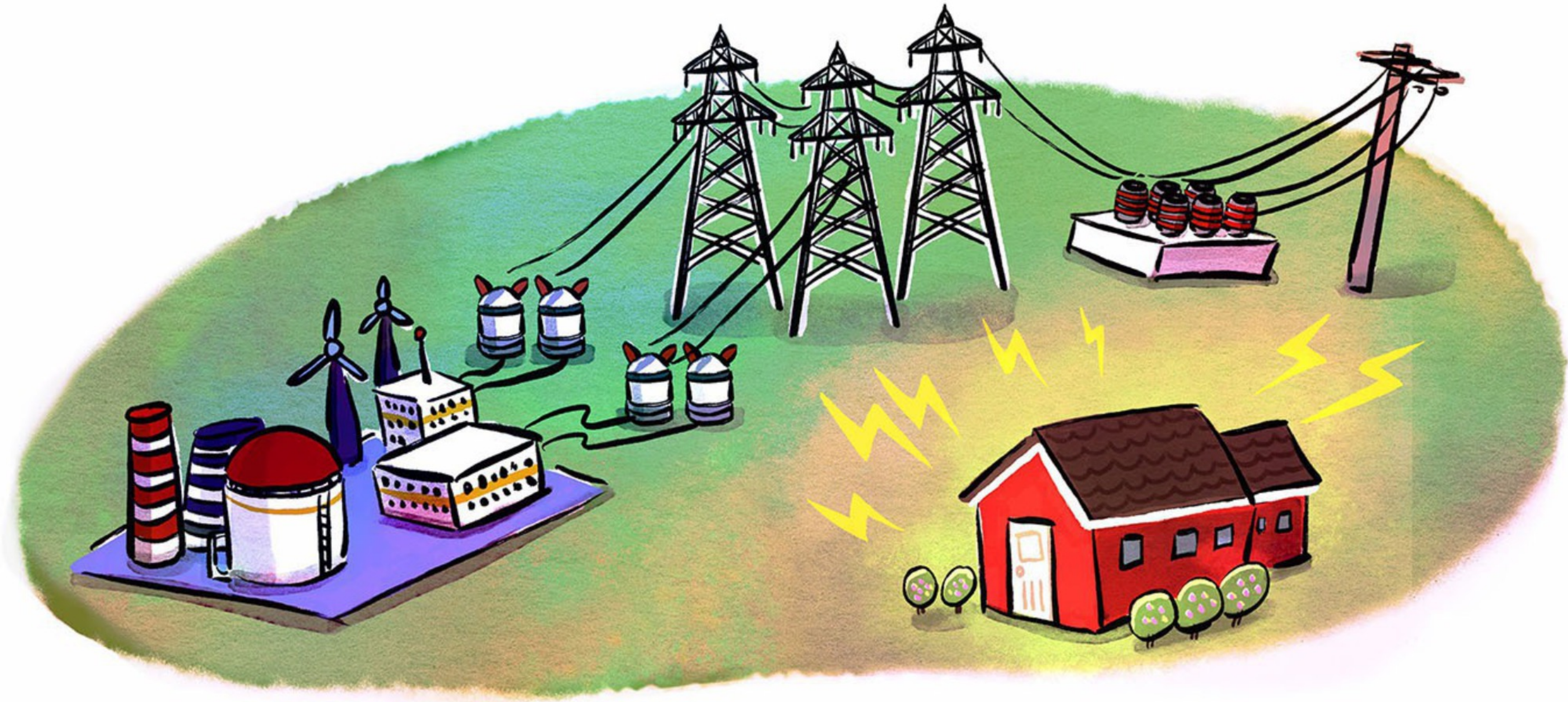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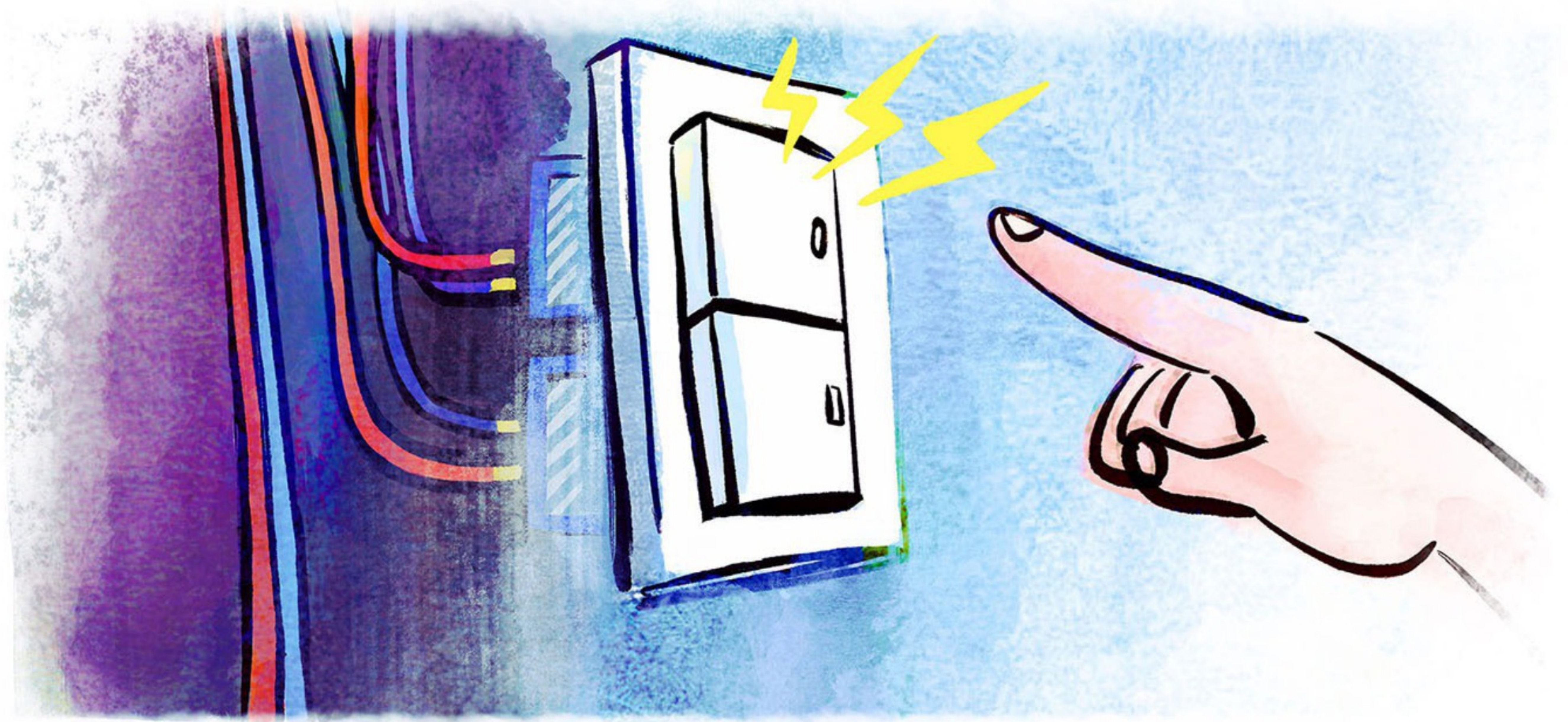
앗, 갑자기 깜깜해졌어요. 정전인가 봐요!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어요. 전기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동안 내 이야기를 들어 볼래요?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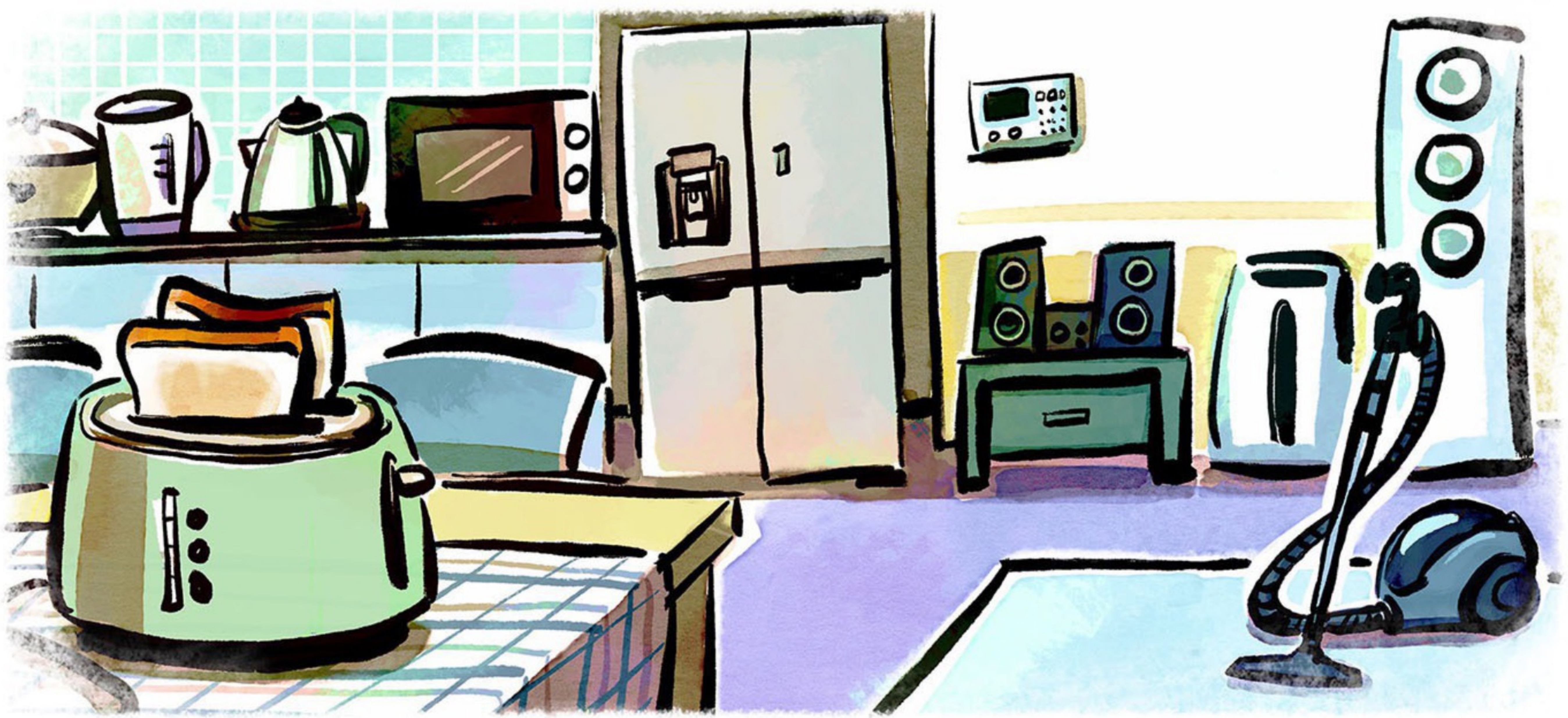
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요. 그리고 집, 학교, 학원 등 필요한  
곳곳으로 가지요. 전기가 어떻게 그 먼 곳까지 이동하느냐고요?  
마치 물이 관을 따라 흐르듯, 전기도 전깃줄을 타고 흘러간답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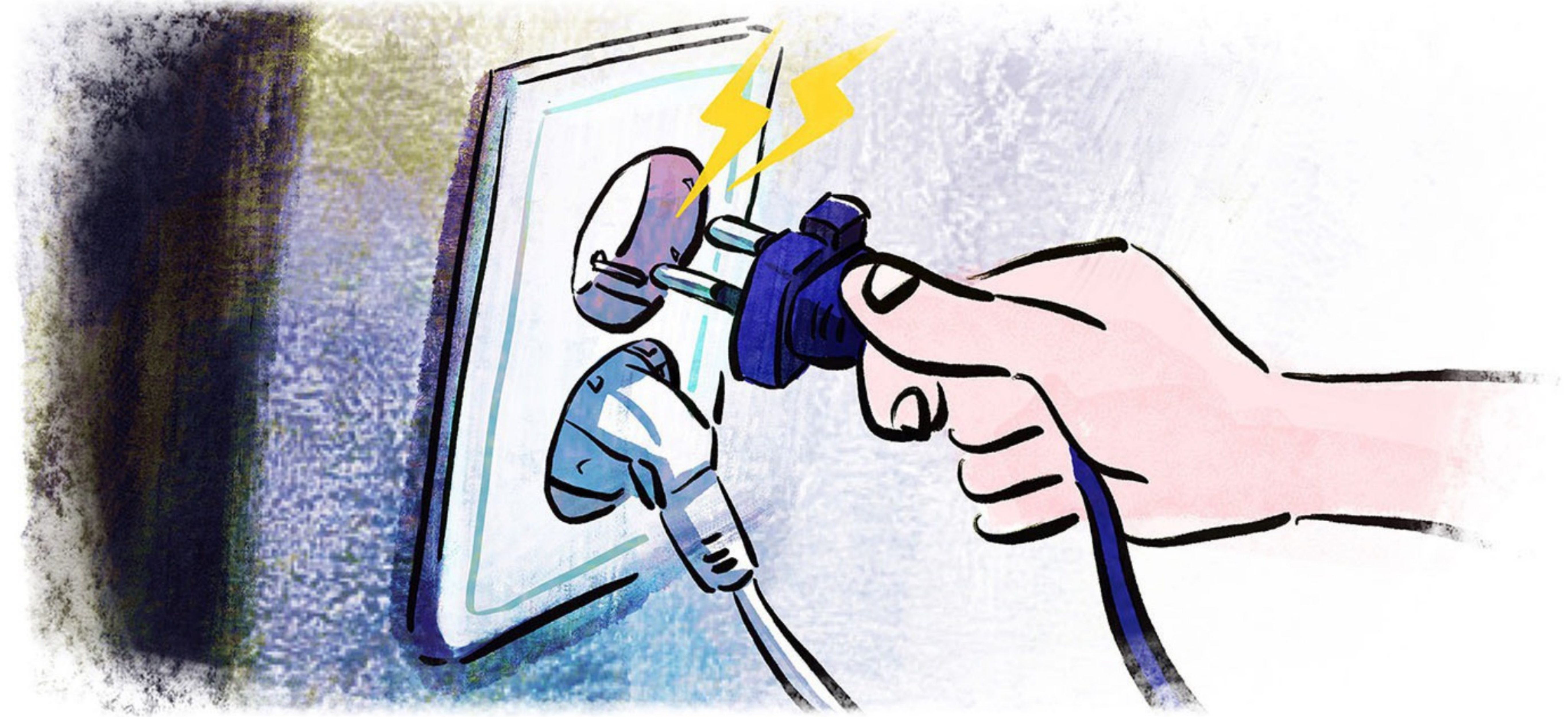
전기가 드디어 집에 도착했군요. 전깃줄은 벽을 타고 집 안 곳곳에 있는 스위치에 이어져요. 그래서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지고 스위치를 반대로 누르면 불이 꺼진답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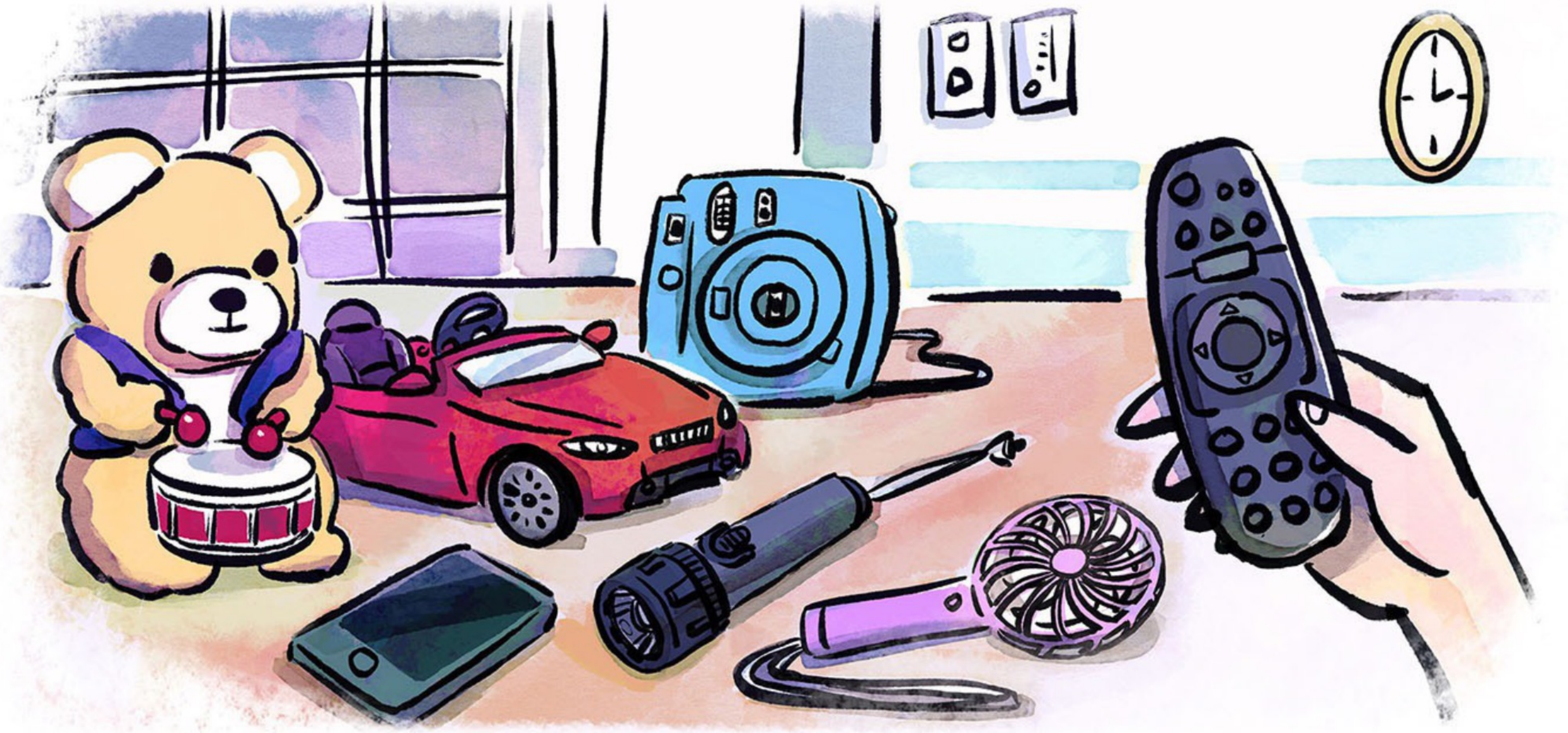
전기는 집 안의 여러 기계에 움직이는 힘도 주지요. 우리는 전기 덕분에 음악을 들을 수 있고, 청소도 할 수 있어요. 음식을 차갑게 얼리거나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고요.





대부분 기계는 마치 꼬리처럼 뒷면에 플러그가 달려 있어요.  
플러그를 콘센트 구멍에 꽂으면 전기가 기계로 흘러 들어가지요.  
덕분에 집 어디서나 전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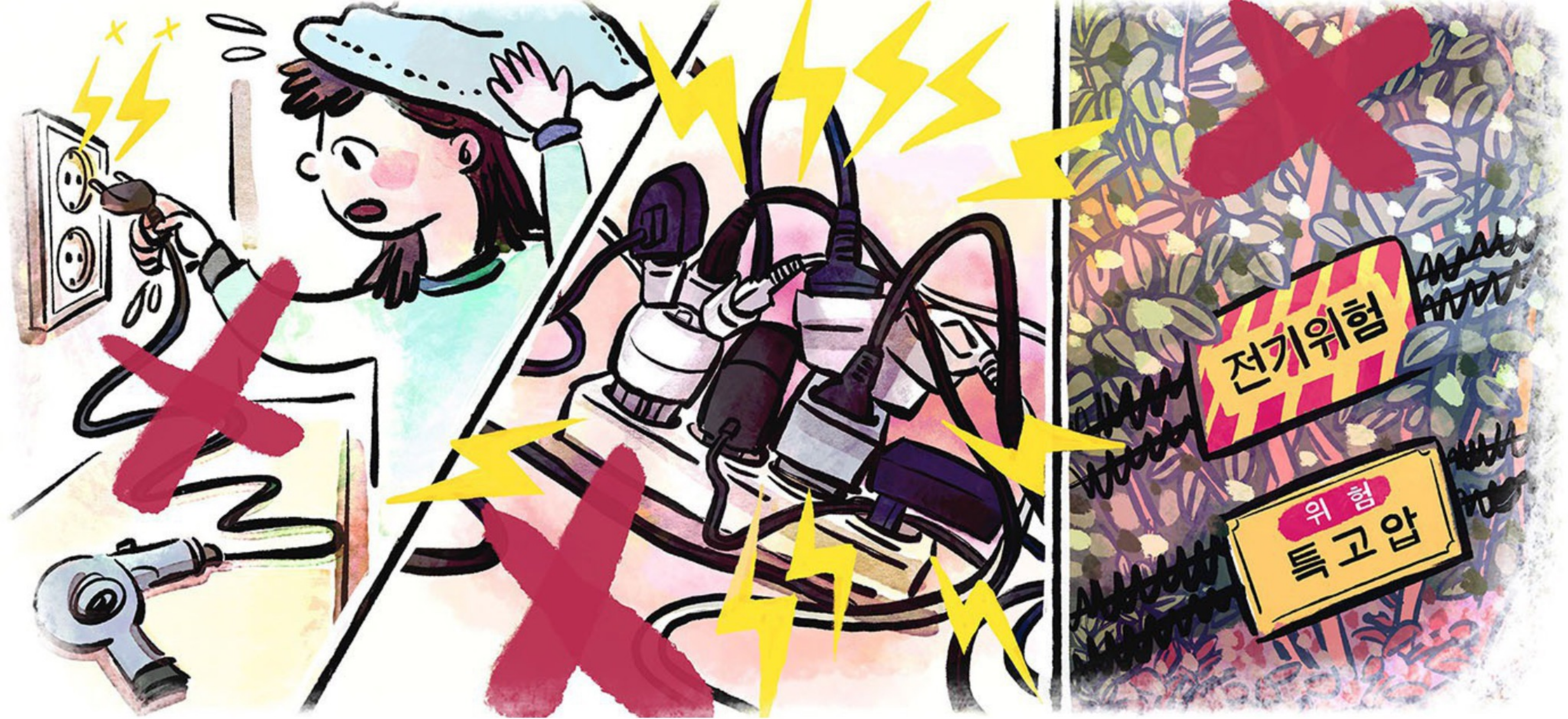
벽시계는 플러그 없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? 시계 뒤에 끼워 넣은 건전지 덕분이에요! 건전지는 전기를 저장하고 있어요. 그래서 플러그가 필요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랍니다.





찌릿찌릿, 따가워! 더워서 스웨터를 벗었더니 전기가 통했어요.  
이렇게 나타나는 전기는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기 때문에  
'정전기'라고 부른답니다.





정전기는 위험하지 않지만 전기가 흐르는 전깃줄이나 콘센트를 함부로 만지면 아주 위험해요. 우리 몸이 감전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전기를 이용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하지요.





와,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시 불이 켜졌네요! 사람들이 동시에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이처럼 정전이 일어나기도 해요.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잘못 다루면 위험한 전기. 조금만 아끼고 주의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면 어떨까요?



“우리 주위의 전기” is licensed under CC BY 4.0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.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, visit <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/>.

© 2019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